

# 北 김정은, 방북 박지원 등에 'DJ 추모 조화' 보내

### 개성공단서 김양건이 전달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 '주목' 오늘 국립현충원서 5주기 추도식 광주·부산·제주 등에 분향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옆 북측 개성공단 중국사무소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홍업 전 의원 등이 환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환담장 앞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의로 된 조화가 놓여져 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화와 조전문을 전달해왔다.

또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등 추모 관련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는 이날 오후 5시에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소에서 방북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을 만나 김 제1위원장 명의의 화환과 조전문을 전달했다.

조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조전문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김 부장과 맹경일 부위원장은 화환을 전달한 뒤 박 의원 일행과 오후 5시10분께부터 6시 이후까지 환담을 계속했다.

김 부장은 박 의원과 임 전 장관에게 "추모 행사를 위해 바쁘신데도 나오셨다. 몇 년 만에 만나"라고 인사를 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이 이날 환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문제 등을 포함한 남북관계와 관련해 어떤 대남 메시지를 내놓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박 의원 등 일행 7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동고동 김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 이희호 여사에게 보고하고 오후 4시30분께 도리산 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방북했다.

이 여사는 박 의원 일행에게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로 김정일 위원장 기일에 추모 화환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추도식은 추도사, 김 전 대통령의 육성 영상 상영, 추모 노래, 유족 대표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추도식 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참배가 이뤄진다.

광주 YMCA 무진관에서 18일 6·15공동선언 실천추진위원회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김정길)와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광주 추모위원회(위원장 정진백) 주관으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시청역 역사내에서 추모 사진전을 열고, 제주에서도 분향소 설치 및 사진전이 열린다. 19일에는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 상영과 추모 공연도 펼쳐진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다음달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 기념강연회도 열릴 예정이다.

추모위원회는 8월 한달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11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연합뉴스

## “광복 70돌 공동 행사 남북 협력 통로 만들자” 박대통령 8·15 경축사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의 북한 응원단 파견 등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 실행에 옮길 수 있을만한 일련의 제안을 펴키지 형태로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 “비정상적 역사를 바로잡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론’을 바탕으로 환경, 민생, 문화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 협력의 통로로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색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새출발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 일본의 ‘결핵해지’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로 “양국 간의 과거사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지혜 및 결단”,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윤장현 시장 “‘세월오월’ 전시 시민 대토론회에서 결정”

##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사퇴

### “비엔날레 특별전 파행 안타까워” 일부 작가 오늘 작품 철거 나설 듯

윤장현 광주시장이 일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참여작가들의 ‘세월오월(홍성담 작)’ 전시유구에 대해 대토론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홍 작가의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걸개그림 ‘세월오월’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 등으로 풍자했다는 이유로 작품전시가 유보돼 있다.

윤 시장은 지난 16일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 명의로 박대성 작가 등 13명에게 ‘참여작가 단원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 “귀 참여작가들이 전시유보된 ‘세월오월’ 작품의 즉각 전시와 책임 큐레이터 즉각 복귀를 요구한 단원서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예술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특별전 또한 안으로 닫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널리 열린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월오월’ 전시유보와 관련해서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특별전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던 작가들은 빠르면 18일부터 작품을 철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날 ‘세월오월’ 전시 여부를 21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9월 16일 홍 작가의 작

품전시 여부 등을 묻는 대토론회를 제안한 상태로, 자문위 회의결과에 따라 전시여부 결정이 앞당겨질지 관심이다.

재단은 참여작가들이 요구한 윤범모 책임 큐레이터 복귀에 대해선 “윤 책임큐레이터는 지난 8월 전시 여부 결정을 위한 큐레이터 회의 도중에 구두로 사퇴의견을 밝혔으며, 비엔날레재단에 공식적인 사퇴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만큼 복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시 유보에 항의해 작품 철거에 나선 참여작가 가운데 해의 작가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케테 폴비츠의 작품을 대여해준 사키미 미술관과 히가 토요미즈, 킨조 미노루 등 오키나와 작가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홍성담 작품 특별전 파행 책임”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사진)가 특별전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이용우 대표이사는 1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단의 대표인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조기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퇴 시점에 대해선 “2014광주비엔날레가 개막하는 9월4일 이후 사퇴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9월16일에 열릴 예정인 대토론회에서는 재단 대표가 아닌 전문가로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특별전 개막식에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의 전시가 유보됐을 때 사퇴하고 싶었다”며 “제가 사퇴하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



어 본 전시를 준비하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이사는 “민선 6기가 시작되고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비엔날레재단 수장 자리에 이런 저런 지역 미술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두 기관 수장은 지역 문화예술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 내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기획실장으로 광주비엔날레를 만들었고, 2004년에는 총감독을 맡아 전시를 기획했다. 상임 부이사장을 거쳐 지난 2012년 6월부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로 일해왔다.

/ 김경인기자kki@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1110-증-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매선 30여대)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 울트라, 세이아, 에너젯 복합치료  
② 여드름 레이저 : 스쿠스원, 아자솔, 피아빔, 프락셀  
③ 케모데이저 : 켈로맥스, 디어오이드로  
④ 피부 미백 : 무데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⑤ 주름·흉터 : 프락셀유일, 울트라맥스임프, 프락셀, 인트라세, 프락셀 세너  
⑥ 모공·텐티지 프락셀5종  
⑦ 비만 : 내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테틱: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테틱: 525-7555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수술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초기 아찔,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40611-증-59153호